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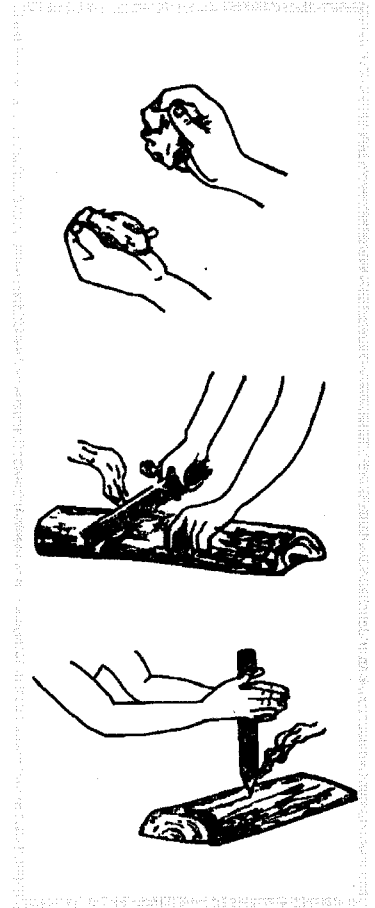
# 우리의 세시풍속 문헌에 나타난 개화(改火)의례

구석기시대 중국 베이징원인은 불을 사용했다. 동서양 신화에서 인간에게 전해진 불은 신의 선물로 표현되지만, 어쩌면 자연에서 처음으로 불을 얻었던 먼 과거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의 포장 아닐까? 어쨌든 불은 자연의 선물임엔 틀림없다. 이렇듯 인류가 어렵게 얻은 불이기에 불을 지키기 위한 소위 '불의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안정적 대책인 부싯돌, 나무발화구 등 발화의 원리도 깨우쳤을 것이다(그림 1 참조).

우리 주위의 이기(利器) 중 칼 등과 마찬가지로, 불도 잘 쓰면 생활에 편리하지만 이를 잘못 쓰면 마(魔)가 되기도 한다(그림 2~4 참조).

전통사회에서 불에 대한 민속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소중한 불'이다. 집안의 아녀자는 불씨를 잘 간수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며느리에게 있어서 불이라는 것은 목숨과 같이 중요한 존재였다. 아녀자의 일상은 부엌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길어온 후, 부엌 아궁이 재치는 작업(作業)을 한다. 그리고 솔에 물을 붓고 난 후 소나무껍질을 묶고 끝에 유향을 발라 화로의 불씨로 불을 붙인다. 불씨는 화로에 불씨와 재를 담아 보존하는데,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화로에는 항상 불이 담겨 있다. 만약 며느리가 불을 간수하지 못하면 시어머니로부터 호된 벌이 내려지며 심하면 집에서 쫓겨나가지 않는다.

불을 붙이는 과정은 먼저 화로에서 붙인 불은 바삭 마른 소나무잎을 놓고 불을 붙여서 불을 살린다. 이를 밑불이라 하며 밑불이 어느 정도 일게 되면 소나무가지와 마른가지를 얹어 불을 피운다. 마른



[그림 1] 부싯돌을 부딪치거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키는 방법 등 인류가 스스로 터득한 각종 인공발화법  
개화(改火)의례 때 불을 일으킨 방법은 두 나무를 비벼서 일으키는 찬수(鑽火)법이다.

가지에 불이 붙게 되면 장작이나 나무등걸을 엮고 불을 때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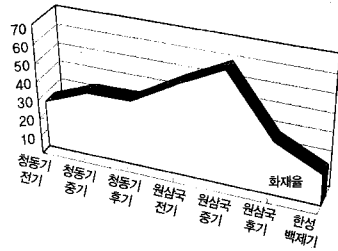
서유구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잡방(雜方)」조에는 ‘불씨를 꺼지지 않게 잘 묻는 법(留宿火)’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숯 10근과 철사(鐵屎; 불무간에 떨어진 쇠똥) 10근을 합쳐 찢어 가루를 만든 다음 생부용(生芙蓉) 잎 3근을 넣고 다시 찢는다. 그리고 찹쌀(糯米)과 아교를 넣고 섞어 반죽해서 수탄(燬炭)을 만들어서 벌에 말리어 태우면, 3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다. 만일 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재로 덮어야 한다. 좋은 호도(胡桃) 1개를 태워 반쯤 탈 때에 뜨거운 재 속에 묻어 놓으면 3~5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다. 향탄(香炭) 만드는 방법은, 석탄(石炭: 없으면 목탄(木炭)도 무방)을 생규엽(生葵葉 생아욱잎)과 함께 찢어 버무려서 떡을 만들어 벌에 말렸다가 태우면 향기로우며 비록 냉습(冷濕)한 땅이라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아녀자의 주공간인 부엌은 구석기시대의 첫 화식(火食)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원초적인 공간이다. 가족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부엌(장독대 포함)은 상징성만큼이나 정결(淨潔)한 곳이다. 부엌신인 조왕(魔王)의 상징은 불이 갖는 정화력(淨化力)에서 유래한다. 상가에 조문을 갔다 왔거나 또는 오랜 여행을 하고 온 뒤 이를테면 몸이 부정(不淨)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먼저 부엌에 들렀다가 방에 들어가는 관습, 장례에서 관이 나가면 곧 아궁이에 불을 때는 관습이 있으니 이는 시신(屍身)이 있던 자리의 습기 제거와 소독작용도 있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시체의 오예(汚穢)를 정화하는 관념, 신부가 시집 대문에 들어설 때 짚불을 피우고 그 위를 지나게 하는 것, 무당굿의 첫 부정거리에서 물에 재(灰: 불을 상징)를 담아서 부정을 씻는 의례 등이 있다.

불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민간신앙도 있다. 세시풍속 중, 윤달(閏月)의 금속(禁俗)에 “불난 집의 사람은 불찍앗임(불씨가심: 불씨의 신을 달래는 곳) 있기 전에는 동네 집에 못 간다.”는 말이다. 화재가 난 집의 사람은 불찍앗임이 있기 전에는 죄인의 몸이라는 속신에서 연유한다. 화재는 옥황의 화덕진군이라는 화신의 조화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지른 어떠한 죄의 댓가로서 발생된다고 인식하는데, 옥황의 불씨의 신인 화덕진군의 노여움을 푸는 의식(굿)이 곧 ‘불찍앗임’이라는 것이다.

만약 화재가 난 집의 사람이 ‘불찍앗임’의 의식을 베풀지 않고 이



[그림 2] 한반도 중부지역 청동기-한성백제기 주거지 화재율 추이(송만영, 2000)

이 그래프는 청동기시대 이후 생산력의 증가와 청동기 등 신소재의 등장으로 약탈 등의 갈등이 증폭되었지만, 강력한 정치체제에 의해 원삼국 중기 이후 전쟁 등의 갈등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화재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지역의 고고학 자료이지만, 인간의 욕심과 갈등에 의해 초래된 불의 재앙을 잘 보여준다.



[그림 3] 화재로 전소(全燒)된 경기도 파주 주월리 96-7호 주거지

이 집은 원삼국시대 후기~한성백제 전기의 주거지 중 하나이다. 검은색이 불탄 기둥 등 건물 부재이다.



[그림 4] 파주 주월리 96-7호 주거지 도면

옷집에 드나들게 되면 그 집에도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화재가 난 사람이 ‘불찍앗임’의 의식을 베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몸에는 늘 불씨가 붙어 옮겨 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굿을 통해 불, 즉 화마를 단절시키는 의식이다. 이 같은 인식은 화재의 연속발생적 측면에서 연유한 듯하다.

불에 대한 민속적 인식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구전(口傳) 혹은 구비(口碑) 전승(傳承)의 원 자료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다. 민속사실은 누대에 걸친 복합된 것이라 그 근원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전하는 세시문헌 속 ‘불의 민속’을 찾아보고자 한다.

맨 먼저, 신화에서처럼 신이 인간에게 불을 내려주듯, 조선시대 내내 이어진 불의 국가적 반화(頒火), 사화(賜火) 의례인 개화(改火)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에는 1년에 5차례 궁중에서부터 관청을 거쳐 가가호호까지 불을 바꿔주었다. 옛 불을 끄고 새 불을 내려주는 의례라 하여 이를 반화(頒火), 사화(賜火), 출화(出火)라 한다. 또 입절일(入節日)과 계하(季夏) 토왕일(土旺日) 등 5차례의 절기에 따라 나무를 바꿔 찬수(鑽燧: 나무를 문질러 비벼 불을 일으킴. [그림 1] 참조)하므로 개화(改火), 개목(改木)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성록(日省錄)』에는 정조(正祖)가 1786년 갑술일(4월 1일) 한성부의 ‘옹리’라는 강촌마을에 옹막(甕幕) 등을 태운 큰 화재가 나자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어사(御史)를 보내며 언급하길, “(전략) 무릇 반화(頒火)와 금화(禁火)는 바로 왕정(王政)의 급선무인데 너희들로 하여금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다만 나 한 사람의 허물 때문이다. 자신을 돌이켜봄에 부끄럽고 부끄러워 무어라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불이 나기 전에 미리 구제하지 못했다 하여 어찌 부끄러워만 한 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략)”

정조는 금화와 반화를 왕정의 급선무라 하였다. 모두 병조(兵曹)의 업무이다. 금화는 한성부(漢城府) 금화도감(禁火都監) 등 관서와 연계된 화재예방, 즉 소화(消火)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와 대책이다. 반화는 다섯 절기에 따라 바뀌며 서로 다른 나무에서 불을 일으켜 불을 전국에 내려주는 것으로, 5절기의 음양을 조화시켜 화재 예방의 차원을 넘어 시질(時疾)을 구제(救濟)하기 위한 의례이다. 제장(祭場)도 국가 제사 장소에서 예조의 참여로 이뤄진 국가의례였다.



금화와 반화는, 겉보기엔 한쪽에서 불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듯하고 한쪽에선 불을 바꿔 내려주는 서로 상반된 업무 같지만 결국 '예방'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지키지 않은 개화의례를 실시하라고 1406년(태종 6) 개화령(改火令)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화재와 질병이 사시(四時) 음양의 부조화에서 기인하므로, 개화의례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개화령(改火令)을 내렸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삼가 '주례(周禮)'를 상고하면, '하관(夏官) 사현(司烜)이 행화(行火)의 정령(政令)을 맡아 사철에 나라의 불(國火)을 변하게 하여 시절(時疾)을 구제한다.' 하였습니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불씨(火)를 오래 두고 변하게 하지 아니하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陽氣)가 정도에 지나쳐서 여질(厲疾)이 생기는 까닭으로, 때에 따라 바꾸어 변하게 한다. 그 변하게 하는 법은 찬수(鑿)하여 바꾸는 것인데, (중략) 각각 그 철의 방위 색[方色]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니다. (중략) 원하건대, 사철에 불씨를 바꾸는 영(令)을 내려, (중략) 그 철의 불씨로 바꾸어 음식을 끓이는 데 사용하면 음양(鄕陽)의 절후가 순조롭고, 역질(疫疾)의 재앙이 없어져서, 섭리(變理)하여 조화(調和)하는 일이 갖추어지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중략) 우리나라에서는 옛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화재(火災)가 일어난다." 고 하였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다."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이후, 중앙에서는 개화를 행화(行火)하지만 지방에서는 잘 실시하지 않자, 성종 2년(1471년) 11월 10일(무신)에 아래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번(성종 2년(1471년) 5월 25일)에 전교(傳敎)를 받자오니, '개화(改火)의 법은 경외(京外)가 같지 아니하니, 금후로는 옛 제도를 따라 시행(施行)하라.' 하였으므로, (중략) 이제 경중(京中)은 옛 법을 준용하되 외방(外方)은 봉행(奉行)하지 않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경중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불을 본조(本曹)에서 받아 5부(五部)에 나누어 주게 하고, 외방도 또한 이 예(例)를 따르게 하여, 여러 고을로 하여금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 것을 일제(一齊)히 거행하게 하여, 어기는 자는 과죄(科罪)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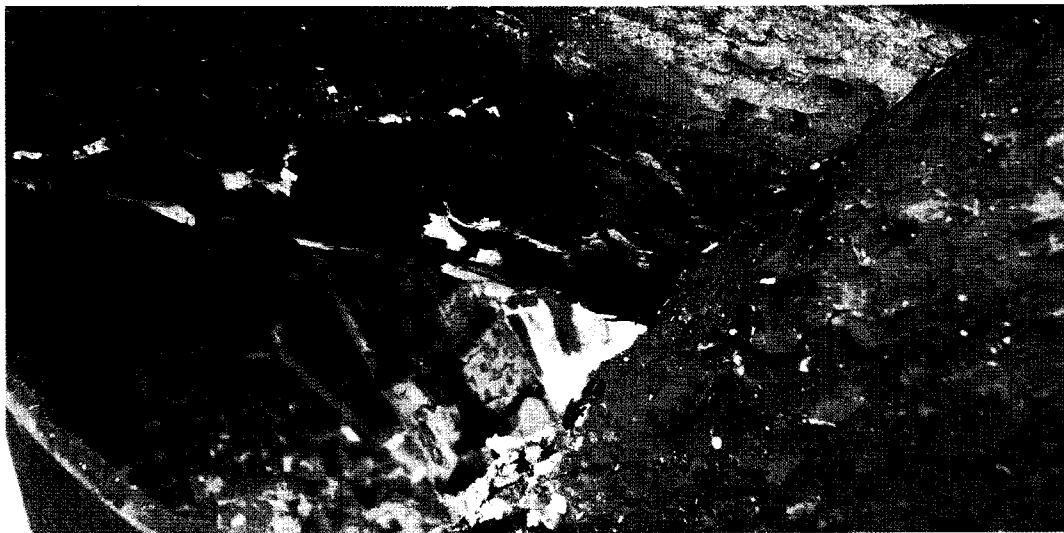
개화 의례는, 『주례(周禮)』, 『예기(禮記)』, 『관자(管子)』, 『논어(論語)』, 『논어정의(論語正義)』 등을 전거(典據)로 하며,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외에,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만기요람(萬機要覽)』 등에 전한다.

찬수의 방법은 그 철의 방위색의 나무를 따르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時]	나무	색	방위	비고
입춘(立春)	느릅나무[榆], 버드나무[柳]	청(靑)	동쪽	금(金)
입하(立夏)	대추나무[棗], 은행나무[杏]	주(朱)	남쪽	수(水)
계하(季夏), 토왕일(土旺日)	뽕나무[桑], 산뽕나무[柘]	황(黃)	중앙	토(土)
입추(立秋)	갈참나무[柞], 느릅나무[榆]	백(白)	서쪽	목(木)
입동(立冬)	느티나무[槐], 박달나무[櫟]	현(玄)	북쪽	화(火)

그럼 불씨는 어떻게 지방까지 전달됐을까? 불씨를 나누기 위해 습기나 바람에 강한 뱀이나 닭가죽 주머니 모양의 불씨통(藏火筒)에 담아 팔도로 불을 보냈다. 보온력이 강한 은행이나 목화씨앗 태운 재는 보온력이 강해 불씨를 옮기는 데 활용됐다.

세시풍속 문헌 속에서 개화 의례를 살펴보다 보면, 색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개화 의례가 행해지는 날이, 크게 청명(淸明)과 한식(寒食)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물론 청명과 한식은 양력 4월 초이며 앞뒤로 놓이거



나 두 날이 겹치기도 하지만 국가의 공식 개화일과는 거리가 있다.

먼저, 청명으로 기록한 문헌은 『열양세시기(列陽歲時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동경잡기(東京雜記)』 등 주요 세시기뿐 아니라, 고경명의 <장안의 청명(長安清明)>(〈제봉집〉 권1, 시) 등 개인문집 등이다. 서필원의 <구양영숙(歐陽永叔)>의 '청명일에 새 불씨를 내려주심(清明賜新火)'이란 시에 차운하다.(〈次歐陽永叔清明賜新火〉)(〈육곡유고〉 권1, 시 칠언율시)는 청명일 개화를 잘 표현하고 있다.

청명일에 새 불씨를 궁궐에서 내려주시니,	清明新火出天門
고관 한 필 말이 먼지 일으키며 달리는 것 보이네.	馳道遙看一騎塵
내려 주시는 은혜는 고관 집에 고르지만,	雨露雖均鍾鼎宅
풍류는 궁중의 근신들이 자랑할 만하네.	風流堪詫掖垣臣
화로에 술 데우니 추위 먼저 물러나고,	當爐煖酒寒先退
우물물 길어다가 차 달이니 맛이 더욱 새롭다.	汲井烹茶味更新
진중한 임금의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珍重聖恩那報答
부디 오래오래 영화를 누리소서.	願將萬八歲爲春

반면, 서거정의 <한식(寒食)>(〈사가시집〉 보유2), 민제인의 <한식날 그네뛰기(寒食鞦韆)>(〈입암집〉 권4, 오언배율) 등 개인문집에서 한식날에 개화의례를 행한다고 적고 있다. 『세시기속(歲時記俗)』의 작자인 면암(勉菴) 조운종(趙雲宗, 1783~1820)은 <한식(寒食)>에서 "한식(寒食)날에는 불을 바꾼다. 조정에서 근신(近臣)들에게 불을 내려 주고, 각 능원(陵園)과 모궁(廟宮)에 관리를 보내 제사를 지내며, 조천(祧遷)한 능에서도 이날 모두 행한다. 하인들도 술과 과일을 마련하여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한다. 寒食改火 國朝賜火於近臣 各陵園廟宮 遣官行祀 祧遷陵一體行之 皂隸輿僮亦無不齋酒果上塚"로 적고, 여기에 시를 덧붙였다. ㉞

좋은 시절에 하사한 불 궁궐에서 나오고	佳辰賜火出宮庭
조천한 능에도 제사 지내니 서적이 향기롭네	徧祀祧陵黍黍馨
하인들도 승냥이와 수달의 보답을 아니	皂隸猶知獐獮報
황량한 무덤에 뿌린 술 북망산이 푸르네	荒墳澆酒北邙青